

## 신학의 학문성 추구에 대한 고찰:

바빙크와 판넨베르크의 보편성과 유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이용규

(함께하는교회)

### [초록]

바빙크는 보편성의 추구를 통해 분리주의를 극복하고 신학의 학문성을 모색하였다. 그는 신학은 단지 모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바빙크에게 하나님 찬양이 전제되지 않은 학문은 신학이 아니다. 그는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고백하면서도 신학의 학문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신학 방법론과 보편성의 강조는 현대와 같은 세계화의 시대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바빙크의 신학은 모사신학에 기반을 둔 삼위 하나님을 향한 송영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판넨베르크는 신학의 학문성을 주장하는 보편성의 근거를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로서의 하나님’에 두고 있다. 그가 신학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신학이 이성과 역사를 거부함으로써 신학이 타학문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다. 그는 유비 개념을 비판하면서 유비 대신에 송영의 개념을 제안한다. 그에게 송영적 진술은 “찬양의 행위”이다. 그러나 그의 신학체계 안에서 송영의 언어는

진리에 대한 회의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를 테면, 그의 송영에 대한 주장은 그의 신학 방법의 전제들과 상충되고 있다. 그는 예수 부활의 확실성은 역사적 연구를 통해 주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성령론을 통한 보편성의 주장은 종말론적 만유재신론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의 송영적 진술은 역사의 예기된 미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진리의 현재성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송영은 구속사의 큰일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판넨베르크의 송영의 개념은 구속사적 모형 유비의 관점에서 재진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구속사적 모형 유비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송영은 불가지론에 빠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속사적 모형 유비는 우리의 인식 능력의 한계와 인간 언어가 지닌 근본적인 제약성을 지적하면서도 신앙의 역사적 기반과 신학의 학문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키워드:** 보편성, 역사성, 신앙 유비, 송영, 모형적 유비

## 1. 서론

신학의 방법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른 방법론 위에서 바른 신학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빙크(Herman Bavinck)는 그의 교의학 제1권 전체를 할애하여 자신의 신학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신학의 학문성에 대해서도 그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의 방법론과 학문성이 논쟁의 요소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타학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학은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이다.<sup>1</sup>

칸트(Immanuel Kant)는 이성인 시공이란 형식체계 안에 있는 대상만 인식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신은 시공의 체계 안에 있지 않으므로 이성의 인식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칸트에게 이성적인 신학탐구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만 남게 된다.<sup>2</sup> 이를 테면, 그는 신학을 윤리학으로 환원시키게 되었다. 칸트에 반발하여 하나님은 이성으로 인식되지 않지만 경험과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주관적 의식의 신학을 주장한 사람이 쉴라이허마흐이다(Friedrich Schleiermacher).<sup>3</sup> 이처럼 신학이 점점 그 학문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위기의 상황은 오늘날에 생겨난 일이 아니다.

오늘날 학문성 논쟁은 신학에서 뿐만 아니다. 일반 학문에서도 그 학문성 논쟁은 뜨겁다. 심지어 기존의 학문 이론과 전혀 다른 주장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칼 포퍼(Karl Popper)는 ‘반증주의’라는 새로운 해법을 내놓는다.<sup>4</sup> 그는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만이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귀납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과 반증의 과정으로 본다. 토마스 쿤(Thomas Kuhn)은 과학에서 도그마와 같은 기능을 하는 패러다임(paradigm)의 존재 여부가 과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주장한다.<sup>5</sup> 이러한 학문성 논쟁 속에서 신학도 타학문이 충족하고 있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어려운 주제이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신학이 교회만을 위한 신학으로 주장되면서 신학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1 Herman Bavinck,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1』(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320-28.

2 Immanuel Kant, 백종현 역, 『순수이성비판 2』(서울: 아카넷, 2011), 777-79; Stanley J. Grenz & Roger E. Olson, *20th-Century Theology* (Downers Grove: IVP, 1992), 27.

3 Wolfhart Pannenberg, 정용섭 역, 『신학과 철학』(서울: 한들출판사, 2001), 287-91.

4 박찬국, 『현대철학의 거장들』(서울: 이학사, 2013), 300-11. 포퍼는 과학과 관련하여 귀납을 불필요하며 귀납 없어도 과학의 합리성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제안한다. 이런 입장을 포퍼의 반증주의(falsificationism)라고 한다.

5 Thomas S. Kuhn, 김명자 역, 『과학혁명의 구조』(서울: 까치글방, 2000), 77-86. 토마스 쿤은 1962년 『과학 혁명의 구조』를 통해서 과학에는 ‘도그마’와 같은 것이 필요하고 과학혁명 은 논리적 절차보다는 과학자들의 심리 상태에 더 크게 의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과학의 객관성, 합리성을 주장하던 당시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지적 도발이었다.

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sup>6</sup>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빙크와 판넨베르크(Wolfhart Pannenberg)는 신학이 학문으로서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대답을 시도했다. 바빙크는 기독교와 현대성, 교회와 문화 가운데 서로 대립되지만 함께 공존하는 역사적인 요소들을 ‘보편성’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했다. 따라서 바빙크의 기독교의 학문성에 있어서 중심주제는 보편성과 관련성을 가진다.<sup>7</sup> 반면에 판넨베르크는 학문성을 실증성이라 규정하고 실증적 신학을 구상하였다. 그래서 그는 신학적 명제도 검증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증적 학문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신학의 학문성에 대한 고찰은 신학의 기독교적 정체성 상실을 막기 위해서도 중요한 주제가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바빙크와 판넨베르크의 보편성과 유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신학의 학문성 추구에 대한 타당한 방법론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째는 기독교의 보편성이다. 두 번째는 유비와 송영의 측면에서 신학의 학문성에 대한 관점과 정합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신학의 학문성과 보편성

### 1. 바빙크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

바빙크는 기독교의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분파주의를 비판했다.<sup>9</sup> 바빙크는 분파주의적 사고를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하여 일어나는 교회의

6 최성수,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신학연구』(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210: 바르트는 신학에 대한 배반행위를 하지 않고는 결코 긍정될 수 없는 질문이라고 보면서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

7 유해무, 『헤르만 바빙크: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서울: 살림출판사, 2004), 240-43.

8 최성수,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신학연구』, 210-12.

9 유해무, 『헤르만 바빙크: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 245-49.

분열은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밝힌다. 특히 그는 자신이 속한 분리파 (afschieding)의 편협성을 경계하면서 교회의 보편성을 추구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교회의 보편성을 다양성 속의 일치로 추구한 공교회적 특성을 지닌다.<sup>10</sup> 바빙크는 삼위로 구분되지만 한분 하나님인 삼위일체에서 보편성의 근거를 찾는다.<sup>11</sup> 그는 그리스도의 온 우주를 위한 화해 사역에 근거한 기독교와 복음의 보편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보편성은 교회의 보편성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교회는 문화와의 관계에서 진주와 누룩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문화를 개혁하고 새롭게 한다.<sup>12</sup> 이처럼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증보자직에서 교회와 세계 간의 기독교적 연합과 통합의 근거를 찾는다.<sup>13</sup> 그러나 그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편성의 강조점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고립주의와 승리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그는 보편성을 분리주의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고립주의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1892년 카이퍼의 애통측과의 통합이후 고립주의가 해소되었을 때 교회와 신학교가 점차 승리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였다.<sup>14</sup>

무엇보다 바빙크가 개혁파 신학을 진정한 의미의 학문으로 보는 입장은 그의 신학적 자세와 신학이 지닌 보편성을 보여준다.<sup>15</sup>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임무이며 성령님이 나누어 주시는 은사의 발전과 열매이다.<sup>16</sup> 그러므로 신학의 학문성을 추구하기 위한 그의 신학은 기독교적이고 공교회적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삼위일체론적 특성을 보여준다.

10 Herman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the Church," trans. John Bolt. *Calvin Theological Journal* 27 (1992), 220-51.

11 Ibid., 226.

12 박철동, "헤르만 바빙크와 칼 바르트 의 계시와 문화관과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신학박사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17), 335-40.

13 박철동, "헤르만 바빙크와 칼 바르트 의 계시와 문화관과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121-23; 137.

14 박철동, "헤르만 바빙크와 칼 바르트 의 계시와 문화관과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349.

15 유해무, 『헤르만 바빙크: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 240.

16 유해무, 『헤르만 바빙크: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 219.

## 2. 판넨베르크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

판넨베르크는 철학적 신 이해를 수용함으로써 신 이해에 대한 보편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는 고대 근동에 존재하는 신의 명칭과 희랍철학에 나타난 제일원리로서의 신의 명칭을 수용함으로써 신에 대한 보편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이다.<sup>17</sup> 그는 야웨는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적 고유명사로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이 보편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sup>18</sup> 판넨베르크는 이 용어를 수용함으로써 기독교는 유대의 민족 종교를 넘어서서 만인을 위한 종교로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한다.<sup>19</sup> 이와 더불어 그는 신학적 진술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역사학적인 방법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sup>20</sup> 그는 현재의 역사는 전체의 완성을 향해가는 부분에 속해 있으며,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로서의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이해는 가설적 성격을 지닌 명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진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종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up>21</sup>

판넨베르크는 종말을 향해 가는 역사로서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현실적으로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하며 단지 부분적인 이해로 그친다면 어떻게 진리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남는다. 그런데 판넨베르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의 부활 사건을 묵시문학적으로 전통을

17 Wolfhart Pannenberg, *Systematic Theology* vol. 1. trans. G.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91). 66-70. 이하 ST 1로 약칭함.

18 ST 1, 67-68.

19 ST 1, 70.

20 Wolfhart Pannenberg, *Theology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trans. Francis McDonagh.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76), 340-42.

21 Wolfhart Pannenberg, *Offenbarung als Geschichte*. In Verbindung mit Rolf Rendtorff, Ulrich Wilckens und Trutz Rendtorff.(ed. W. Pannenber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1), 106. 이하 OaG로 약칭함.

통한 이해를 주장한다. 그는 역사의 종말이 앞당겨 실현됨으로써 선취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sup>22</sup> 이 예수의 사건을 통해 모든 주장은 검증될 수 있으며, 예수의 사건과 일치하는 진술만이 진리로 판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3</sup> 판넨베르크는 예수의 부활을 위한 결정적인 중요성은 성령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sup>24</sup> 그리고 그는 신학에 있어서 성령이 삼위일체의 완성자로서의 사역과 세상을 향한 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령의 역할은 삼위일체의 최종적 완성자일 뿐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 삼위일체의 완성자이신 성령의 사역으로 주어진 단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보편성을 지닌 사역을 행하신다.<sup>25</sup>

판넨베르크의 신학에서 성령의 보편성을 지닌 사역이 만유재신론과 관련된다.<sup>26</sup> 그는 장이론(field theory)의 관점에서 성령의 역동성을 시간과 공간에 연결시킨다. 그는 역장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신학과 과학 사이의 가교를 놓을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했다.<sup>27</sup> 그에게 영은 역장과 같거나 유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역장이다.<sup>28</sup>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신적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온전히 확보되기 때문에 성령이해에 나타난 보편성과 관련된 그의 신론은 '종말론적이며, 만유재신론'의 성격을 갖는다.<sup>29</sup> 쿠퍼(John W. Cooper)는 판넨베르크가 스스로 만유재신론

22 *OaG*, 103-06.

23 *OaG*, 95-98.

24 Wolfhart Pannenberg, *Systematic Theology* vol. 3, trans. G.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97), 4-12. 이하 *ST* 3로 약칭.

25 이신열, "판넨베르크의 창조론과 성령론: 보편성을 중심으로", 『하나님 형상과 세상의 형상 권호덕 박사 정년퇴임기념논문집』(서울: 하늘양식, 2013), 448.

26 John W. Cooper, *Panentheism: The Other God of the Philosophers. From Plato to Present* (Grand Rapids: Baker, 2006), 259-60.

27 *ST* 1, 381-83.

28 Pannenberg, *Toward a Theology of Nature: Essays on Science and Faith*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32.

29 Grenz & Olson, *20th Century Theology*, 171-72.

자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의 신학은 하나님과 세계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바로 만유재신론적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sup>30</sup> 판넨베르크에게 있어 하나님의 현실적인 실존성은 역사가 종말에 접근해가면서 더욱 구별되게 셋이 되는 동시에 더욱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본질적인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영원히 실재하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현실적이 아니다.<sup>31</sup> 이런 이유 때문에 판넨베르크는 종말론적 만유재신론의 요소로서 미래의 존재론적 우위성을 주장한다.<sup>32</sup>

그러므로 판넨베르크가 주장하는 자신의 기독교론에는 “아래로부터”의 방법의 문제점을 인식할 뿐 아니라, “위로부터”의 기독교론을 인정한다.<sup>33</sup> 여기에 판넨베르크의 기독교론적 “딜레마”가 등장한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그는 유비 대신에 송영을 주장한다.<sup>34</sup> 특별히 그는 예수 부활의 확실성은 역사적 연구를 통해 담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35</sup> 그런데 그가 채택한 송영과 더불어 부활의 소급적 힘 등의 개념은 몇몇 철학자나 신학자

30 Cooper, *The Other God of the Philosophers*, 265-66; Roger Eugene Olson, *Trinity and Eschatology: The Historical Being of God in the Theology of Wolfhart Pannenberg* (Ph.D. dissertation, Rice University, 1984), 324-93. 올슨은 판넨베르크의 신학을 종말론적 만유재신론이라고 부른다.

31 Cooper, *The Other God of the Philosophers*, 325.

32 Wolfhart Pannenberg, *Jesus-God and Man*, trans. Lewis L. Wilkins & Duane A. Prieb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8), 154. 이하 JGM으로 약칭.

33 ST 2, 288-89.

34 판넨베르크의 유비에 대한 비판으로서 송영을 주장하게 되는 배경을 그의 저작의 연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5년, *Analogie und Offenbarung* (Habilitationsschrift), Heidelberg, unpublished. 이 논문은 2007에 책으로 출판됨. 이 책에서 판넨베르크의 유비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나타남. 1963년, “Analogie und Doxologie,” in *Dogma und Denkstrukturen*. 이 소논문은 영문으로 번역되어 *Basic Questions in Theology*의 Vol. 1에서 “Analogy and Doxology”으로 출판됨. 여기에서 판넨베르크는 유비에 대한 비판과 유비 대신에 송영의 사용을 주장함. 1964년, *Grundzüge der Christologie*. 이 책은 1968년에 *Jesus-God and Man*으로 번역됨. 판넨베르크는 이 책의 후반부에서 송영을 전제하여 위로부터의 기독교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위로부터의 접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1988-93년, *Systematische Theologie* 1-3. 이 책은 1991-7년에 영문 *Systematic Theology* vol. 1-3으로 출판됨. 이 책의 제2권에서 성육신에 대한 고전적 기독교론에 대하여 호의적이면서 ‘위로부터’의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인정함.

35 JGM, 99.

들에 의해서 수긍될 뿐 대다수의 역사가들에 의해 거부된다.<sup>36</sup>

### III. 유비와 송영

#### 1. 바빙크의 유비에 대한 이해

##### (1) 모사신학

개혁파 정통주의는 신학을 원형의 신학(theologia acretypa)과 모사의 신학(theologia ectypa)으로 구분했다. 바빙크에게 지상의 모든 신학은 모사의 신학이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방편적 신학이다. 그에게 모든 신학은 모사의 신학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자의식은 원형(archetype)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끌  
어 올려진 우리의 신지식은 그 원형에 대한 모사(ectype)다.<sup>37</sup>

즉, 원형의 신학이란 삼위 하나님의 자기의식 속에 존재하는 신학이며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학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원형의 신학을 절대 알 수 없다. 이 원형의 신학이 계시의 형태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모사의 신학이다. 원형의 신학은 계시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서 모사의 신학으로 나타난다.<sup>38</sup> 바빙크는 모사의 신학이 성령의 내적 증거로 조명될 때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능해진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의 신적인 의식 가운데 있는 이 원형의 지식으로부터 자기의 형상을

<sup>36</sup> Herbert Burhem, "Pannenberg's argument for the Historicity of the Resurre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40 (1972), 378.

<sup>37</sup> Herman Bavinck,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2』(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125.

<sup>38</sup> Herman Bavinck, 『개혁교의학 2』, 125-26.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모사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다.<sup>39</sup>

개혁파 신학자인 프란키스쿠스 유니우스도 지상의 신학이 모사신학(ectypische theologie)임을 강력히 강조하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귀속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말했다.<sup>40</sup> 그러므로 바빙크는 특정 신학을 절대화하여 원형의 신학이라고 주장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개혁신학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학이지만 이것을 원형의 신학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지상의 모든 신학은 단지 나그네 신학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바빙크는 원형과 모형의 관점에서 신학을 하였다.<sup>41</sup> 그는 모사적 혹은 유비적 신학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포함된다고 한다.

1) 우리의 모든 신지식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말미암으며, 그의 계시, 즉 [객관적으로] 추론된 이성에 근거한다. 2)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지식을 피조물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내려와 그들의 이해 능력에 자신을 맞추어야만 한다. 3) 이러한 낮추심의 가능성은 부인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 즉 유한한 존재의 실재와 더불어 자연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4) 하지만 그런 이유로 우리의 신지식은 항상 단지 유비적일 뿐이다. 즉, 우리의 신지식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유비를 따라 형성된다. 그리고 그 지식의 내용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것들” 가운데,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성향”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다. 따라서 그 지식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갖는 완전한 지식에 대한 단지 유한한 형상, 연약한 비유 그리고 피조물의 흔적일 뿐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지식은 참되고 순수하며 신뢰할

39 Bavinck, 『개혁교의학 1』, 329.

40 Franciscus Junius, 한병수 역, 『참된 신학이란 무엇인가』(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6), 141-246.

41 유해무, 『헤르만 바빙크: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 240-41.

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하나님의 자의식을 원형으로 삼으며,  
 세상에 나타낸 하나님의 자기 계기를 토대로 삼기 때문이다.<sup>42</sup>

이와 같이 바빙크는 하나님의 자의식은 원형(archetype)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끌어낸 우리의 신지식은 그 원형에 대한 모사(ectype)라고 한다.<sup>43</sup> 그런 점에서 그는 ‘모사신학’이라고도 언급한다.<sup>44</sup> 바빙크에게 지상의 모든 신학은 모형의 신학이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찬양이 전제될 때 학문도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간파한 참된 신학자이다.

## (2) 삼위 하나님을 향한 송영

바빙크에게 삼위일체는 신학의 근본 원리이며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이방종교와 구분된다.<sup>45</sup> 그러므로 그는 삼위일체론이 담지하고 있는 신학적 의의와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의 고백과 더불어 전체 그리스도교는 서고 넘어진 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에 대한 고백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고 모든 교리들의 뿌리이며 새 언약의 실체다. …삼위일체 교리는 한 편의 형이상학적 교리 또는 한 편의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라는 종교 자체의 심장이고 본질이다.<sup>46</sup>

바빙크는 삼위일체론에서 기독교의 심장이 뛰며, 모든 이단은 따져보면 삼위론의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sup>47</sup> 그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갖는 영광은 통일성이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고 포함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42 유해무, 『헤르만 바빙크: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 128.

43 Bavinck, 『개혁신학 2』, 125. 모사는 모형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44 Bavinck, 『개혁신학 2』, 125-26.

45 Bavinck, 『개혁신학 2』, 355.

46 Bavinck, 『개혁신학 2』, 420-21.

47 Bavinck, 『개혁신학 2』, 371.

다.<sup>48</sup> 삼위일체의 각 위는 서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구분되어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각 위는 동일본질인 것이다.<sup>49</sup> 삼위는 그들의 영원한 내재적 관계에서 서로 구별된다. 성부는 영원히 성부이시며, 성자도 영원히 성자이시고, 성령 또한 영원히 성령이시다. 각 위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방식으로 자신이므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다.<sup>50</sup> 그는 존재론적 삼위일체 안에서의 존재 순서는 경륜적 삼위일체를 통해 신비하게 반영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sup>51</sup>

바빙크는 삼위일체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자기 전달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자기 전달의 절정인 성육신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라고 말했다. 바빙크는 하나님의 자기전달을 인정한다면 성육신도 인정하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가능성도 인정하게 된다고 말한다. 바빙크는 그의 교의학에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자기전달이고 하나님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이런 자기전달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sup>52</sup>

바빙크에게는 기독교는 신학의 심장이다.<sup>53</sup> 특별계시(은혜)가 전제되고 그 빛 안에서 일반계시(은혜)가 그 자체의 의미를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일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소망이다. 교회만 공교회 일뿐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보편적이다. 이같이 기독교의 보편성을 가지고서 기독교의 보편성으로 연결시킨다. 바빙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편성에서 출발해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기독교를 제창한다. 이를 테면, 교회의 보편성에 근거한 연합을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기독교의 보편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킨다. 이런 점에서 바빙크의 보편성은 그리스도 중심적 삼위일체적 특성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추론들은 삼위일

48 Bavinck, 『개혁교의학 2』, 376.

49 Bavinck, 『개혁교의학 2』, 375.

50 Bavinck, 『개혁교의학 2』, 379-87.

51 Bavinck, 『개혁교의학 2』, 400.

52 Bavinck, 『개혁교의학 3』, 342.

53 Bavinck, 『개혁교의학 3』, 333.

체 교리를 확실히 증명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학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계시를 삶 전체와 연관시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한다.<sup>54</sup> 그는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고백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따라서 교의학은 메마른 학문이 아니다. 교의학은 신정론(theodicee)이며, 하나님의 모든 미덕과 완전성에 대한 송영이고 경배와 감사의 찬송이며,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다.(눅 2:14)<sup>55</sup>

그러므로 바빙크에게 신학의 궁극적 목적은 삼위 하나님을 향한 송영이다. 이처럼 그에게 하나님 찬양이 전제되지 않은 학문은 신학이 아니다. 이와 같이 그는 신학의 목적이 송영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신학의 학문성 추구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바빙크의 신학은 모사신학에 기반을 둔 삼위 하나님을 향한 송영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판넨베르크의 유비에 대한 이해<sup>56</sup>

### (1) 유비에 대한 비판

판넨베르크(Wolfhart Pannenberg)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은 그의 신학의 다른 부분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다.<sup>57</sup> 그런데 부활의 역사적 증명은 유비의 원리(principle of analogy)와 연관되어 있다. 이 세계 안에 있는 사물들은 유비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사물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사물들로부터 인식한다. 역사적 인식은 모든 사물들이 유비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만약 유비가 없다면 신앙과 학문

<sup>54</sup> Bavinck, 『개혁신학 2』, 416.

<sup>55</sup> Bavinck, 『개혁신학 1』, 169.

<sup>56</sup> 이용규,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의 그리스도의 선재성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신학박사 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2015), 91-118, 128-49의 내용을 요약하여 실었음.

<sup>57</sup> Jürgen Moltmann, *Religion, Revolution and the Future*, trans. M. Douglas Meek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9), 49-55.

의 역사적 기반을 세워질 수 없다.

에른스트 트뢰츨취(Ernst Troeltsch)는 역사적 탐구의 원리로서 유비의 원리를 제안했다.<sup>58</sup> 그로 인해 신학적 함축성을 지닌 역사적 연구의 도구로서 유비에 대한 고려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에 따르면, 과거 사건의 발생과 미발생에 관한 가능성의 판단은 단지 그것이 현재 인간의 경험이 과거에 있어서 그것과 유비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sup>59</sup> 유비란 역사적 연구의 방법적인 원리로서 이해하기 어렵고 인간에게 어두운 어떤 것을 연구자가 자신에게 가까운 것에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끈다.<sup>6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넨베르크는 유비에 대해서 비판적이다.<sup>61</sup> 그 비판점은 먼저 신플라톤주의의 전제들은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있는 구조적 유사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계시의 하나님의 행동의 독특성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sup>62</sup> 두 번째로, 신플라톤주의 원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 전 존재의 대립으로서 죄의 이해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이 점이 판넨베르크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반대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sup>63</sup> 마지막으로, 신플라톤주의 유출에 의한 질서는 '새로움'이 생략된다고 파악한다.<sup>64</sup>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동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미리 추론될 수 없는 방법으로 행하시는 역사의 주(Lord)이시다.<sup>65</sup>

58 *Basic Questions in Theology* vol. 1&2 (Philadelphia: Fortress, 1970). 이하 BQ로 약칭함. BQ 1, 45.

59 Elizabeth Ann. Johnson, *Analogy/Doxology and their Connection with Christology in the Thought of Wolfhart Pannenberg* (Ph.D.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81), 76.

60 BQ 1, 43.

61 BQ 1, 83. "the biblical God ... is completely without analogy."

62 Wolfhart Pannenberg, *Analogie und Offenbarung: Eine Kritische Untersuchung zur Geschichte des Analogiebegriffs in der Lehre von der Gotteserkenntn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42. 이하 A&O로 약칭함.

63 Johnson, *Analogy/Doxology and their Connection with Christology in the Thought of Wolfhart Pannenberg*, 27.

64 A&O, 43.

65 A&O, 50.

또한 판넨베르크는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에 근거한 주장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적 차원의 언어로 묘사되어 격하된다고 주장한다.<sup>66</sup> 이런 이유 때문에 판넨베르크는 유비(analogy) 대신에 송영의 개념(a concept of doxology)을 제안한다.<sup>67</sup>

(2)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존재 유비의 가능성?

판넨베르크는 예수의 부활을 문자 그대로 누구든지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역사적이고 객관적 현실로 간주한다. 또한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이 역사 비평적 접근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다고 믿는다.<sup>68</sup>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부활 체험사건을 인식론적 관점에서 다룸에 있어서 주지해야 할 점이 있다. 부활 체험사건은 분명히 역사적 현실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현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며 이성적 관점에서의 역사 비평적 탐구로는 접근의 한계에 부딪히는 초역사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종말론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부활은 제자들의 환상이나 주관적인 확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인식의 한계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이 세계 안에 있는 사물들은 유비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사물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사물들로부터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인식도 모든 사물들이 유비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sup>69</sup> 만일 부활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물들과 아무런 유비 관계가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라면 이는 육체적인 눈과 정신적인

66 BQ 1, 231.

67 BQ 1, 234.

68 JGM, 101-06. 판넨베르크는 예수 부활의 사실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신약성경의 여러 증언들 중에서 대표적인 요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증언이고, 둘째는 부활이 제 삼일에 일어났으며,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번 그의 추종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증언이다.

69 Ronald H. Nash, 이경직 역, 『기독교와 역사』(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152: 내쉬는 부활 자체는 다른 역사적 사건처럼 검증될 수 없다고 밝힌다.

이성만으로 인식할 수 있거나 증명해 낼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부활은 객관적이고 역사적 사건이지만, 신약성경에 나타난 빈 무덤 전승과 부활하신 주의 출현은 송영(doxology)이며 신앙 고백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다.<sup>70</sup> 부활은 이러한 성격을 가졌으므로 사람들이 세계에 속한 사물들을 인식하는 이성의 조건 하에서 인식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일의성적 유비는 존재하지 않는다.<sup>71</sup>

### (3) 유비에 대한 종말론적 재해석으로서의 송영

판넨베르크에 따르면 송영적 진술은 “찬양의 행위”(act of adoration)이다.<sup>72</sup> 판넨베르크는 자신의 보다 일반적 개념을 위한 영감으로서 송영을 제안한 에드문트 쉘링크(Edmund Schlink)의 분석을 인용한다.<sup>73</sup> 판넨베르크에게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모든 진술은 송영적이다.<sup>74</sup> 한편, 판넨베르크는 유비에 대하여 비판적이면서도 역사 이해에 있어서 송영은 유비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sup>75</sup> 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는 오직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언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지닌 간접성은 오직 유비적으로(analogically)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76</sup> 송영적 진술은 인식적 내용을 위하여 역사의 예기된 목표에 의존한다. 하나님 자신에 의해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에 관한 진술은 유비가 아니라 단지 송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유비적 언어가 이러한 이 진술이 지닌 미래적 차원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77</sup>

<sup>70</sup> Hans-Joachim Kraus, 박재순 역, 『조직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349.

<sup>71</sup> Kraus, 『조직신학』, 349. 크라우스는 인류사를 변혁하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유비는 없다고 말한다.

<sup>72</sup> BQ 1, 216.

<sup>73</sup> Edmund Schlink, *The Coming Christ and the Coming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1968), 16-84.

<sup>74</sup> BQ 1, 233-34.

<sup>75</sup> BQ 1, 217-18.

<sup>76</sup> BQ 1, 212.

<sup>77</sup> BQ 1, 238.

이제 판넨베르크의 유비 이해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가의 임무는 실제로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그 시대의 상식적 지식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이다.<sup>78</sup> 그런데 그가 채택한 송영 개념은 몇몇의 철학자나 신학자들에 의해서 수긍될 뿐 대다수의 역사가들에 의해 거부된다.<sup>79</sup> 그러므로 판넨베르크는 부활의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두드러지게 강조하지만,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하는 확고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게 예수의 부활마저도 아직은 종말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검증을 기다리는 사건에 해당된다.<sup>80</sup> 이러한 종말의 개념에 의하면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은 사실상 확보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이러한 회의주의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종말론적 지식은 반드시 현재적 지식의 확실성에 의해 담보되어야 한다.

#### IV. 신앙 유비와 송영의 상호보완적 적용

판넨베르크는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은 중요하지만 이는 종말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검증을 요청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81</sup> 그는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주장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부활은 객관적이고 역사적 사건이지만<sup>82</sup>, 그가 호소하는 두 전승인 신약성경에 나타난 빈 무덤 전승과 부활하신 주의 출현 전승은 신앙 고백적이며 송영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아래로부터의 기독교론을 통해 부활의 역사성을 말할 수 있는 일의성적 존재 유비는 없다. 하지만 인간의

<sup>78</sup> Herbert Burhenn, "Pannenberg's argument for the Historicity of the Resurrection", 378.

<sup>79</sup> Herbert Burhenn, "Pannenberg's argument for the Historicity of the Resurrection", 375-77.

<sup>80</sup> *JGM*, 397.

<sup>81</sup> *JGM*, 397.

<sup>82</sup> Moltmann, *Religion, Revolution and the Future*, 49-55.

언어가 지닌 근본적인 제약성을 지적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역사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유비는 있다.

이를테면, 구속사의 진전(progress of redemptive history) 가운데서 예수의 성육신적 토대 위에 부활의 역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신학적 도구는 구속사적 모형 유비(redemptive typological analogy)이다.<sup>83</sup> 이는 개혁신학이 추구해야 할 신앙유비이다.<sup>84</sup> 그러나 바르트의 신앙유비는 내재적 삼위일체 내에서의 관계 유비를 논한다.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 제 3권에서 관계 유비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신앙 유비를 관계 유비로 새롭게 이해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내에 있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성과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사이에 있는 관계성 사이에는 유비가 있다는 것이다.<sup>85</sup> 이런 점에서 바르트의 신앙유비는 경륜적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그러므로 바르트의 신앙유비는 유비를 인정한다는 점에 있어서만 바르트의 활용이 가능하다. 신앙유비의 대표적 형태로서 구속사적 모델을 언급한다면 게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의 구속사적 모델이 유용하다. 왜냐하면 보스의 구속사적 모델은 바르트의 구속사 및 폰 라드(Von Rad)나 고펠트(L. Goppelt)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sup>86</sup> 이를테면, 그리고 폰 라드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엇을 믿었으며, 신앙고백의 형태로 보도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두고 있다.’<sup>87</sup> 이와 반대로 보스는 성경에 나타난 특별계시의 흐름과 그 발전과정을 밝히어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 마디로 성경 계시에 바탕을 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속사라고 할 수 있다.<sup>88</sup> 보스는 구속이 역사적이며 계시적인 성격을 지니

<sup>83</sup> Vos, 『성경신학』, 163-67; Gerhard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London: SCM Press, 1975), 2:372-74, 384-85.

<sup>84</sup> BQ 1, 28-30. 판넨베르크도 모형 유비에 대한 역사성은 긍정한다.

<sup>85</sup> 정기철, “신학적 해석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칼 바르트의 유비의 신학”, 274.

<sup>86</sup> Gerhard von Rad,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Essay on Old Testament Hermeneutics*, ed. Claus Westermann (John Knox Press, 1979), 20.

<sup>87</sup> 신득일, 『구약정경론』, 86.

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가 구속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다른 행위와 불가피하게 연관된 것이며, 또 이 구속은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구속은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인류의 각 세대들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계시는 '구속의 해석'이다. 그러므로, 구속이 점차로 전개되듯이, 계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89</sup>

이런 점에서 구속사적 모형 유비의 측면에서 건물로서 옛 성전은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구속사적 유비에 해당된다.<sup>90</sup> 모형은 구약성경에 그림자(foreshadow)로 예표되었던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이 신약성경에서 원형으로 구현되어 성취되는 수사학적 표현 중의 하나이다. 구약의 모형은 신약에서 나타나는 원형의 그림자에 해당된다.<sup>91</sup> 따라서 구약의 모형들은 실제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이며 원형의 불완전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모형론에는 약속과 성취, 그림자와 실체, 예언과 성취의 구도가 반드시 성립한다.<sup>92</sup> 구약의 성전이 모형(antitype)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원형(prototype)이다.<sup>93</sup> 그리고 모형은 비유나 알레고리와는 다른 개념이다. 알레고리는 예표된 것과 이루어질 사건 사이에 인위적인 관계를 설정하지만 모형론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형은 하나님의 인간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둔다. 그리고 모형과 원형의 유사 관계는 역사적 정확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형은 신화나

<sup>88</sup> Geerhardus Vos, 이승구 역, 『성경신학』(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21-25.

<sup>89</sup> Vos, 『성경신학』, 22.

<sup>90</sup> Goppelt, *Typos*, 292.

<sup>91</sup> Vos, 『성경신학』, 164-66.

<sup>92</sup> Sidney Greidanus,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9), 257.

<sup>93</sup> Leonhard Goppelt. *Typos: The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rans. Donald H. Madvig (Grand Rapids: Eerdmans, 1982), 292.

전설에 기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sup>94</sup>

모형론적 유비는 전통적으로 변증론과 더불어 보이는 사물과 현상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유추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성전 (temple)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실재로부터 발견되는 구속사적 모형 유비는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타당성을 충분히 지닌다.<sup>95</sup> 그러므로 구속사적 모형 유비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유비(analogy)는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구속사적 모형 유비는 신앙의 역사적 기반과 신학의 학문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 V. 결론

본 논문은 바빙크와 판넨베르크의 보편성과 유비에 대한 관점을 토대로 두 신학자가 추구하는 학문성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바빙크는 보편성의 추구를 통해 분리주의를 극복하고 신학의 학문성을 모색하였다. 그는 신학은 단지 모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바빙크에게 하나님 찬양이 전제되지 않은 학문은 신학이 아니다. 그는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고백하면서도 신학의 학문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신학 방법론과 보편성의 강조는 현대와 같은 세계화의 시대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바빙크의 신학은 모사신학에 기반을 둔 삼위 하나님을 향한 송영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94 유해무, 『개혁 교의학: 송영으로서의 신학』(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284, 각주 68. 유해무는 모형은 미래와는 상관없이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된 그대로의 인물과 사건을 말한다. ...그러므로 비역사적인 성격을 가진 풍유(Allegory)와는 구별된다고 한다.

95 E. P. Sanders, *Jesus and Judaism* (London: SCM Press, 1985), 11. 샌더스는 예수의 성전 정화사건(막11:15-19)을 유대교적 갱신의 종말론이라는 틀 안에서 풀이하였다. 결국 그것은 기존의 성전에 대한 상징적 파괴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실 회복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서의 새 성전에 대한 열망과 대조되는 행위였다고 설명한다. :김세윤, “예수와 성전”, 『예수와 바울』(서울: 참말, 1993), 160.

있다.

판넨베르크는 신학의 학문성을 주장하는 보편성의 근거를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로서의 하나님’에 두고 있다. 그가 신학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신학이 이성과 역사를 거부함으로써 신학이 타학문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다. 그는 이러한 고립화를 벗어나기 위한 보편적 신학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성을 근거로 하여 논증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판넨베르크의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와 하나님과의 일치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그러나 성령론을 통한 그의 보편성에 대한 주장은 종말론적 만유재신론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역사적 인식의 한계라는 딜레마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유비 대신에 송영을 주장한다. 송영은 인간의 인식 한계를 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술은 찬양 행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장점이 있지만 그 장점이 또한 단점이 되어버릴 위험에 놓인다. 왜냐하면 그의 송영적 진술은 미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역사적 진리의 현재성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예수 부활의 확실성은 ‘역사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확보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과도 일관성이 없다. 그러므로 유비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송영은 불가지론에 빠질 수 있다. 무엇보다 송영은 놀라운 구속사의 당연한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판넨베르크의 신학에서 송영의 개념은 구속사적 모형 유비의 관점에서 재진술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성, 교회의 보편성을 배타적, 폐쇄적으로 말하지 않고 포괄적인 진술은 현대에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고백하면서도 삼위 하나님을 향한 송영과 보편성의 강조는 구속사적 모형 유비의 바탕위에 그 근거와 조화로운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구속사적 모형 유비를 통한 송영은 우리의 인식 능력의 한계와 인간 언어가 지닌 근본적인 제약성을 지적하면서도 신앙의 역사적 기반과 신학의 학문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Abstract]****A Reflection on the Pursuit of a Scientific Basis of Theology: With Emphasis on Understanding about Universality and Analogy of Theology in Bavinck and Pannenberg**

Yong Kyu Lee (Ham Ke Ha Nun Church)

Herman Bavinck tried to overcome separatism and seek a scientific basis of theology through the pursuit of universality. He insisted that theology is only *theologia ectypa*. It is not a theology for Bavinck not to be premised on the praise of God. In pursuit of a scientific basis of theology, he humbly confessed the limits of humanity about the trinity myster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like modern times, Bavinck's theological methodology and emphasis on universalit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is sense, Bavinck's theology is based on *theologia ectypa*, and can be said to be theology of Doxology toward triune God.

Wolfhart Pannenberg put universality claiming the a scientific basis of theology in "God as a reality that defines everything". The reason why he pursued the universality of theology is in that theology rejects reason and historicity so that it is alienated from other scientific fields. Therefore he carried out research on the concept of analogy. While criticizing

this concept, he had selected the concept of doxology for his theological program. Doxology is merely an “act of worship” and is not a scientific language. But Christologically speaking, Pannenberg claims the certainty of Jesus' resurrection should be proved by historical studies.

However, his claim of universality in Holy Spirit shows the nature of eschatological panentheism. Also, because doxology depends on the anticipated future of history, the present state of truth is overlooked. Moreover, doxology is a natural result of a wonderful redemptive history. Also, the present state of truth is overlooked. Therefore, it raises a skepticism regarding its truth in his decision to choose doxology in place of analogy. Consequently, there is no theological room left for him to utilize the analogy of being in his effort to guarantee the historicity of Jesus' resurrection.

In this essay, instead, it is suggested that there is a redemptive typological analogy as an evidence for the historicity. Therefore, when we try to describe God in our theological language, a redemptive typological is a good mean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historicity of a scientific basis in our theological discussion.

**Key Words:** Universality, Historicity, Analogia fidei, Doxology, Typological Analogy

## [참고문헌]

- Bavinck, Herman.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the Church," trans. John Bolt. *Calvin Theological Journal* 27 (1992)
- Burhenn, Herbert. "Pannenberg's argument for the Historicity of the Resurre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40 (1972): 368-79.
- Cooper, John W. *Panentheism: The Other God of the Philosophers. From Plato to Present*. Grand Rapids: Baker, 2006.
- Goppelt, Leonhard. *Typos: The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rans. Donald H. Madvig. Grand Rapids: Eerdmans, 1982.
- Grenz, Stanley J. *Reason for Hope: the Systematic Theology of Wolfhart Pannenber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Grenz, Stanley J. & Olson, Roger E. *20th Century Theolog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2.
- Greidanus, Sidney.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9.
- Johnson, Elizabeth Ann. *Analogy/Doxology and their Connection with Christology in the Thought of Wolfhart Pannenberg*. Ph.D.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81.
- Moltmann, Jürgen. *Religion, Revolution and the Future*. trans. M. Douglas Meek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9.
- Olson, Roger Eugene. "Trinity and Eschatology: The Historical Being of God in the Theology of Wolfhart Pannenberg." Rice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84.
- Pannenberg, Wolfhart. *Offenbarung als Geschichte*. In Verbindung mit Rolf Rendtorff, Ulrich Wilckens und Trutz Rendtorff (ed. W. Pannenber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1.

- \_\_\_\_\_. *Jesus-God and Man*. trans. Lewis L. Wilkins & Duane A. Prieb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8.
- \_\_\_\_\_. *Theology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trans. Francis McDonagh.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76.
- \_\_\_\_\_. *Systematic Theology* vol. 1. trans. G.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91.
- \_\_\_\_\_. *Systematic Theology* vol. 2. trans. G.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94.
- \_\_\_\_\_. *Systematic Theology* vol. 3. trans. G.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1997.
- \_\_\_\_\_. *Toward a Theology of Nature: Essays on Science and Faith*.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 \_\_\_\_\_. *Analogie und Offenbarung: Eine Kritische zur Geschichte des Analogiebegriffs in der Lehre von der Gotteserkenntn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 \_\_\_\_\_. *Basic Questions in Theology*. vol. 1& 2. trans. George Keh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2008.
- Sanders, E. P. *Jesus and Judaism*. London: SCM Press, 1985.
- Schlink, Edmund. *The Coming Christ and the Coming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8.
- Bavinck, Herman. *Gereformeerde Dogmatiek*.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1-4』.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 Junius, Franciscus. 한병수 역. 『참된 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6.
- Kant, Immanuel. 백종현 역. 『순수이성비판 2』. 서울: 아카넷, 2011.
- Kraus, Hans-Joachim. Reich Gottes: *Reich der Freiheit, Grundriß Systematischer Theologie*. 박재순 역. 『조직신학: 하느님의 나라-자유의 나라』.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 Kuhn, Thomas S. 김명자 역. 『과학혁명의 구조』. 서울: 까치글방, 2000.

- Nash, Ronald H. *Christian Faith & Historical Understanding*. 이경직 역. 『기독교와 역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 Pannenberg, Wolfhart. 정용섭 역. 『신학과 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1.
- Vos, Geerhardus.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이승구 역. 『성경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참말, 1993.
- 박찬국. 『현대철학의 거장들』. 서울: 이학사, 2013.
- 박철동. “헤르만 바빙크와 칼 바르트의 계시와 문화관과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신학박사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17.
- 신득일. 『구약정경론』. 서울: 생명의 양식, 2012.
- 이신열. “판넨베르크의 창조론과 성령론: 보편성을 중심으로”. 『하나님 형상과 세상의 형상 권호덕박사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 하늘양식, 2014: 434-53.
- 이용규 이신열.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연구: 판넨베르크를 중심으로”. 『조직 신학연구』 제18호(2013): 164-92.
- \_\_\_\_\_.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의 유비이해”. 『한국개혁신학』 제42권(2014): 160-90.
- 이용규.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의 그리스도의 선재성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학박사 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2015.
- 유해무. 『개혁 교의학: 송영으로서의 신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 \_\_\_\_\_.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서울: 살림, 2004.
- 정기철. “신학적 해석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칼바르트의 유비의 신학”. 『장신논단』제40집(2011): 260-87.
- 최성수.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신학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